

풍자속에 망해가는 비루한 운명

남조선의 윤석열역도 지금 세인으로부터 아우와 조소, 비난과 규탄을 받으며 풍자의 제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미전부터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하거나 횡설수설, 동문서답식의 발언으로 《1일1만언후보》, 《무지몽매한 인간》, 《사람잡는 정치인》이라는 야유를 받고 《도리도리》, 《윤도리》, 《떡발남》 등 《도덕적저능아》로 불리운 윤석열역도, 《아래도리만 보고 누군지 알아맞추기》라는 풍자유희의 주인공, 너편네에게 귀여운 《바지입은 안주인》, 《3대머저리》로 비난받아온 회세의 바보, 《정치해내기》인 주제에 《대통령》 후보라고 거들먹거리며 때부터 역도와 그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와 《책공약》, 동족대결말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동영상편집물과 그림, 사진들이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게재되었고

권력을 가로막고있는 후에도 《술통령》의 본색을 풍자하는 《투표로 음주문화 확실히 개선합시다》라는 대형구호막이 서울 광화문광장과 종로구일대에 게시되는가 하면 《윤석열을 심판하자》는 만평이 인터넷에 실리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윤석열역도를 퇴진, 탄핵시키기 위한 민심의 의지를 반영한 《정치보복, 평화과피, 민생이면, 친일굴욕 윤석열을 퇴진하라!》는 주제의 시국성명발표와 윤석열규탄가회화견, 윤석열퇴진성토모임 등과 함께 각이한 풍자물, 풍자소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퇴진》이라고 쓴 선전물에 《민생과관》, 《권력사유화》, 《검찰독재》 등 윤석열역도의 퇴진리유를 써붙이는 의식, 《윤석열 폭주를 멈추라!》, 《김건희 퇴진을 실시하라!》 등의 대형 구호막까지, 역도의 집권이후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례의식, 김건희체포상항국공연, 노래 공연... 얼마전에는 《대통령실》 주변에 마스크를 착용한 윤석열역도가 콘로프의 앞살을 풀어헤치고 알몸풍미를 드러내고 해벌쭈꺼리는 만화가 10여장이나 나붙어 윤석열역도를 아연하게 하였다.

더우기 만화에는 《마음껏 락사하세요.》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아래에 《퇴진까지 1초 준다.》, 《세계적망신, 경제폭망 윤석열 퇴진하라.》, 《왜 태어났니.》, 《그냥 내려와.》 등의 글을 써넣으며 역도를 마음껏 조롱하였다고 한다.

또 전남예술평화학교 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만화가 《학생만화전시회》에서 최우수작품으로 평가되어 금상을 수여받았다.

만화는 윤석열역도의 상통을 형성한 증기기관차가 흰연기를 내뿜으며 질주하는데 기관사자리에는 열차를 미친

해 《윤석열이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에서 4주째 연속 세계신기록을 세우고있다.》고 아우하였다.

얼마전에도 《미국의 소리》방송은 윤석열역도의 언론탄압책동을 풍자하여 역도의 사진을 거꾸로 게재하고 남조선방송기자협회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하였다.

남조선의 남녀로소 가림없이 아우하고 조소하는 풍자극의 주인공, 밖에 나가서도 갖은 구슬수에 올라 《외교망신》, 《외교참사》만 벗어내는 《정치못내기》.

남조선민심의 풍자에는 윤석열역도의 반인민적약정과 사대굴종, 동족대결정책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숨배어 있다.

동시에 안락에서 아우와 조소를 받으며 멸망해가는 역도의 종말이 비껴있다.

비루한 목숨을 연장해보려고 아등바등대며 몸부림치는 보수집권자들에게 대한 풍자열풍은 《리명박근혜》 시기를 이어 윤석열역도에게로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자속에 시대의 폐물인 윤석열역도의 파멸도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 부산에서 자주평화대행진 진행 —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일 남조선의 시민단체가 《한미호상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끝낼것을 주장하는 자주평화대행진을 벌였다.

10월 1일은 지금으로부터 69년전 연속적인 《한미호상방위조약》이 조인된 날이다. 당시 이승만역적패당이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총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한미호상방위조약》은 이른바 《공산주의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하에 미군의 특제공군무력을 남조선의 그 어디에나 마음대로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것과 이러한 권한은 《무기한 유효하다.》는 데 대해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공식화한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조약이다.

이 치욕스러운 날을 맞으며 《부산겨레하나》가 부산에 있는 미국령사관앞에서 자주평화대행진을 진행하였다.

《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는 행진에 앞서 미국이 남조선과의 관계에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불평등을 강요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 땅에 기여해온지 어떤 77년이 되었다. 이제 우리

가 이 땅의 당당한 주인임을 선언하자.》, 《우리는 자기 눈으로 여기에 미국령사관이 도적처럼 숨어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집안에 도적이 들어오면 온 가족이 합심하여 몽둥이로 때려몰아내는 법이다. 우리의 이름으로 미국령사관에 경고장을 날리자.》고 웨치었다.

이어 시민단체성원들은 미국령사관 입구에 조선반도에서 저지른 미국의 죄악을 까밝히고 단호히 결산할 의지를 밝힌 경고장을 붙인테이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본사기자



사분오열에서 지리멸렬어로

남조선의 《국민의힘》내부가 수라장이다.

얼마전 《국민의힘》의 룬리위원회는 전 당대표 리준석에게 당원권리정지처벌을 1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저들에게 사사건건 맞서는 이전 당대표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던 친윤석열파가 법원으로부터 당규약수정으로 구성된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자 이때다 하고 리준석에게 또다시 추가처벌이라는 반격을 가한것이다.

지금 리준석은 친윤석열파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밝히고 그의 지지세력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추가처벌을 받아야 할 리유라면 막말을 한 윤석열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주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의 막말론난에 룬리위원회는 왜 입을 다물고있는가, 비상사직적인 권위와

공정하지 않은 힘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있다.

사나운 개 코등 아물 틈이 없다고 당장에 끝이 날것같던 리준석과 친윤석열파와의 싸움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보자 치열하게 진행될것이라는 것이 여론의 평이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보나실이 전 당대표를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삼는 것처럼 다 써먹고 필요없게 되니 원수취급하는 친윤석열파들이나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볼 대상으로 발악하는 리준석과 그의 패거리들이나 한바리에 실어든 기술치 않을것들이라는것은 분명하다.

리준석을 처리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내부가 결코 편안해진것도 아니다.

새 당대표를 선거하는 문제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저저마다 인물이라고 하는

자들이 당대표후보로 나서려고 준비하고있는데 어떤자는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떠들고 어떤자는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침방울을 뿜는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당지 지층에서 지지율이 1위이다. 또 누구는 일반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위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느라 목숨을 뿜는다.

《백가정명》이라고 저저마다 제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덩달아 대구시장이라는 자는 《배신경력있는 사람은 가라. 소신없는 수양버들은 가라.》고 호통치면서 지지율이 높은 반, 비윤석열파를 견제하느라 신경을 든군다.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 당을 틀어쥐자는것이고 나아가서는 더 큰 권력까지 거머쥐자는 것이다.

보나바와 같이 썩은 고기에 히에나들이 달라붙듯 서로 으르렁거리는 역적패당의 형투로 하여 정치는 조종한 날이 없고 사회가 더욱 어지러워지는것이다.

갈수록 찾아들 줄 모르고 더더욱 치열해지는 역적패당의 내부싸움,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치졸함과 저열함도 서슴치 않는 《국민의힘》은 승악을 부러대며 지리멸렬의 길로 정신없이 줄달음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민심이 최악의 남대리지로 굴러떨어지는 민생은 아랑곳없이 개싸움질로 날과 달을 보내는 《국민의힘》것들을 향해 허구한 세월 썩은 정치의 오물탕속에서 썩대대로 썩은 진짜 《적폐의 왕초》들이라고 쓰거운 경멸과 조소를 보내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로 되었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선거때 무더기로 람받했던 《장미빛공약》들이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날아났듯이 이를 달해준다.

《최고의 경륜과 실력》을 광고했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행정부의 요직들

거주는 특혜와 특권으로 《룡와대》는 부정부패의 소굴로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외세와의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남조선은 최악의 위험지대로 화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이 역적패당을 《날리면》의 명수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가.

소문난 잔치 먹물것이 없다고 제가 한 약속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윤석열역도는 정치깡패, 인간추물, 부패왕초가 틀림없다.

남조선 각계가 《날리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역적패당은 아예 인간사회밖으로 날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윤석열역도가 파멸의 실연으로 구겨막힐 날은 멀지 않았다.

배영일

단평 《날리면》

최근 남조선에서 《날리면》이라는 말이 류행되고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미합중국 제46대 대통령 조 날리면》이라고 소개하는 사진이 게시되는가 하면 노래가사에도 《휘 날리며》와 《흔날리는》 표현도 《휘바 이든》, 《흔바 이든》으로 고쳐져 인기를 끌며 불리워지고있다.

《날리면》은 지난 9월하순 윤석열역도가 미국해군과정에 상선을 향해 상말을 한것이 드러나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윤석열분석전문가 보충한것이다.》는 비굴한 변명을 한 후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역도의 너털한 억지해명에 남조선 각계층은 《최악이다.》, 《부끄럽다.》, 《정상인의 발언이 아니다.》며 강하게 비난했으며 그때부터 《날리면》은 아등하고 우직한 윤석열역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의 대명사로 되었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선거때 무더기로 람받했던 《장미빛공약》들이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날아났듯이 이를 달해준다.

《최고의 경륜과 실력》을 광고했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행정부의 요직들을 검찰출신관료들로 채워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판이다.

《협력》, 《국민통합》은 정치보복과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파썸공약, 《민영화》, 《부자감세》를 강행하며 근로대중을 민중의 나락으로 내몰고있는 역도의 악정으로 하여 찾아볼 길이 없다. 너편네의 지평에 따라 《판지》개건을 비롯한 각종 공사들을 벌려놓고 일가족속들과 측근들에게 넘

남조선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나돈다고 한다.

확진된 데의 하면 그 병명은 《윤두창》, 《최고 세계에 전파되고있는 《원숭이천연두》가 변이된것이 아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멸시와 적대, 중요감만 두드러지고 《위협》, 《도발》과 같은 공포증, 피해망상 등이 합병되며 《대결》, 《전쟁》과 같은 헛소리를 치다가 자멸이라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고 한다.

인간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죽음을 선고받게 하는 윤

석열역도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비난과 분노가 함축된 표현이 《윤석열+천연두》 즉 《윤두창》인것이다.

역도가 집권하여 오를까지의 남조선현실을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윤석열역도가 그렇게 고아대던 《공정》과 《상식》,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고 친인척, 심복들만 등용되는 《정실인사》, 군부독재를 무색케 하는 《검찰공화국》의 출현, 제 패거리의 권력과 향락을 위한 부패정치가 판을 치고있다.

역도의 정치보복에 의해 서로 죽일대기를 하는 정치권의 권력다툼은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가족이나 협박한 사람들의 생활을 아예 장막 쳐놓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옛말이 다시금 재현되고 인간들사이의 정과 룬리마저도 무참히 파괴되고있다.

리명박등, 계층간갈등, 세대간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으로 사회는 처참히 쪼개지고 자식이 부모가 부당스럽게 죽어가고 부모가 자식이 시끄럽다고 때려죽이고 칼랑쳐죽이며 애인들사이, 부부사이에서 폭행과 살인이 범람하는 페르세데의 비참한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생활이 너무도 고달파 《내 삶은 생선》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비참한 생을 스스로 버리는 자살자가 너무 많은 《자살왕국》으로 불리우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자살률은 100%이상 증가하고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10만명당 자살자는 23.6명으로 여전히 세계1위라고 한다.

불교에 아버지욕과 규환지욕이 있다더니 윤석열역도의 집권으로 남조선사회가 바로 두 지욕을 합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한것이다.

리광희

여성가족부 폐지책동을 규탄배격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발표에 대하여 야당과 각계층이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도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행정부의 부서들이 모두 여성들을 채용하고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로 전략하였다고 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뿜었다.

끝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첫번째 조항으로 박아넣고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떠들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구의 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 가족,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수립》과 복리, 보호 등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역적패당의 책동은 사회적여론을 분노로 끓게 하고있으며 각계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야당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회적갈등과 정치적싸움을 더욱 격화시킬것이다.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서를 없애버려 《성평등정책》의 후퇴를 조래할것이니라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갈등으로 번져질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행하려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거공약》이라고 해도 잘못된 《공약》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있다.

제일 분노를 터치고있는것은 여성들이다.

남조선전역의 110여개 여성단체들은 역적패당의 《정부조직개편안》발표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정치적위기에 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었다. 여성을 《인구생산도구》, 《전쟁의 도구》로 삼겠다는것이다.》라고 폭로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책동을 규탄배격하였다.

본사기자

그러면서 여성단체들은 《윤석열(정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단단히 각오하라. 우리는 결사항전의 태도로 투쟁할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자들이 여성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것은 거부기장등이 쏘아 피기를 바라라는것이 나 마찬가지이다.

본사기자

